



[산업] 한화 인니에 원판플랜트 수출 글로벌 진출 발판 05



Economy

코스피	2204.85 (-1.35)	코스닥	716.86 (+1.56)
금리 (6개월 3년)	1.81 (-0.02)	환율 (USD-달러)	1112.70 (-3.60) (1.31)

4분기 실적 중간점검

상장사 52% '어닝쇼크'... IT·통신 등 성적표 부진

상장사 286곳 중 70여곳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예측치와 유사기업 29% 어닝 서프라이즈는 19% 삼성전자도 기대치 하회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실적이 크게 하락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매출 59조2천700억원, 영업이익 10조8천억원을 각각 올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초동 삼성 딜라이트 모습.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닝쇼크(실적부진)'를 나타냈다. 시장의 이익 기대치보다 10% 이상 못미친 기업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실적을 낸 상장사는 전체의 29%였고, 예상치보다 10% 이상 높은 실적을 낸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 상장사는 18%선에 머물렀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서어닝쇼크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286개 상장사 가운데 25%인 70여곳이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실적 예상치에 10% 이상 미달하는 실적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한 기업이 40여곳에 달한다. 이미 4분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기업 69개 중 52.2%인 36곳이 어닝쇼크였다. 실적 예측치와 유사했던 기업은 전체의 29%인 20개였으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곳은 18.8%인 13개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코스피시장 기업의 2018년 4분기 실적은 대부

분 예상치를 밑돌았다. 실적발표 기업의 순이익 예상치는 9조984억원이었으나 실제 순이익은 4조9098억원에 머물렀다. 영업이익도 26조489억원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21조 6459억원이었다. 매출액은 예상치와 거의 유사했지만 1.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호텔·레저서비스, IT 하드웨어, 통신서비스 등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대부분의 기업이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다. 지난해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최고 기록을 달성했지만 4분기 실적 하락이 옥의 티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59조2700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17년 4분기의 65조 9800억원보다 10.2%, 전기인

2018년 3분기의 65조4600억원보다 9.5%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0조8000억원으로 전기 17조 5700억원보다 38.55%나 떨어졌다. 2018년 매출액은 240조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이는 2, 3분기의 역대 최고 매출액 기록이 견인한 것이다.

LG전자의 실적도 기대 이하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 8일에 발표된 LG전자의 2018년 4분기 잠정 실적은 15조7705억원으로 전기의 15조4279억원보다 2%가량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7%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753억원에 불과해 전기인 7488억원 대비 89.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5% 떨어졌다.

31일 잠정실적을 발표한 NAV

ER의 영업이익도 줄어 들었다. 네이버의 4분기 영업이익은 2133억원으로 전기인 2217억원보다 3.8% 떨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7%나 하락한 수치다.

대한항공도 4분기 영업이익이 120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415억원에 그쳐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도 영업이익이 19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315억원에 머물렀다.

증권가 관계자는 "시장의 기업 실적 하향 조정에도 어닝쇼크가 이어지면서 3월 중반까지 예정된 작년 4분기 실적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한남 수습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독자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메트로신문은 7일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열렸다

완성차 공장, 2021년 하반기 가동

현대차-광주시 극적 합의

좌초 위기에 놓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 6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형 좋은 일자리 창출 1만개 공약'을 발표한 지 4년 반,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면서 노동시장에 새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는 31일 광주시가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 최종안에 합의하고 광주시와 1차 투자 협약을 맺었다. 최종안은 이날 오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공동결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및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를 토대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향후 전체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석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현대차 등의 투자는 신설법인 설립 시점에 집행된다.

광주시가 제시하고 현대차가 첫 투자자로서 합의한 투자 협약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자본금 약 28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광주시측(광주시가 출연하는 투자자)이 자본금의 21%인 약 590억원을 출자한 최대주주이며, 향후 약 1680억원 규모의 60% 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역사회,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약 530억원을 출자, 19% 지분 투자자로만 참여한다. 신설법인의 완성차 위탁생산공

장은 빛그린산단내 약 62만8099㎡ 부지에 10만대 규모로 건설되며,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 광주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하반기 가동을 시작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하며 투자자의 일원으로 경차급 SUV를 신규 개발해 신설법인의 생산공장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차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설법인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메이커들의 차량 위탁 생산을 유치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원 수준(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작하며, 광주시의 공동복지 프로그램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까지 등을 포함하면 실질 소득은 크게 향상된다. /양성근 기자 ysw@

현대중에 현물 출자... 대우조선 민영화

산은, 2.5조 유동성 지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모두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 현대중공업은 계열 조사를 총괄하는 통합 법인을 만든다. <관련기사 2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 지분 처리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제3차 배정 유상증자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1조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신주발행한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건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다만 다른 잠재 매수자인 삼성중공업 측에도 조만간 접촉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강도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5000%를 상회하던 부채비율이 200%로 낮아졌다며 지난해는 상당한 이익이 예상돼 큰 폭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의 성과가 있어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기업매각을 통한 회수의 목적으로 협약을 실시하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 현대중공업의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연합뉴스

것이 아니라 장기적 조선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중 중심 계열인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우선적으로 M&A(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늘 조건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관련 진행 사항을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략적 투자 유치 방안을 보고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우조선해양 일지>

- ▲ 99. 8. 26 = 대우중공업 워크아웃 발표
- ▲ 00. 10. 23 = 대우중공업, 대우조선공업과 대우중합기계, 대우중공업으로 법인 분할
- ▲ 01. 2. 2 = 대우조선공업 증권거래소 재상장
- ▲ 01. 8. 23 = 대우조선공업, 워크아웃 졸업
- ▲ 02. 3. 16 = 대우조선해양으로 사명 변경
- ▲ 08. 3. 26 = 산은 대우조선해양 매각발표
- ▲ 09. 1. 21 =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
- ▲ 10. 10. 10 = 2020년까지 매출 40조원 달성 비전 선포
- ▲ 15. 7. 29 = 대우조선, 2분기 잠정실적 공시로 3조318억원 적자 발표
- ▲ 15. 8. 11 = 대우조선, 임원 수 30% 감축·비핵심 자회사 정리 등 자구 계획안 발표
- ▲ 15. 10. 29 = 산업은행, 4조2천억원 규모 지원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발표
- ▲ 16. 6. 09 = 정부, 조선 3사 구조조정 방안 확정
- ▲ 16. 7. 05 = 대우조선, 8대 채신 플랜 발표
- ▲ 16. 7. 18 = 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횡령 혐의로 구속
- ▲ 16. 11. 10 = 산은-수은 대우조선에 2조8천억원 규모 추가 자본확충
- ▲ 16. 12. 2 = 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 16. 12. 29 = 산은 출자전환 1조8천억원, 수은 영구채 매입 1조원 실행
- ▲ 17. 3. 15 = 대우조선, 2016년 1조5308억원 영업손실, 2조7895억원 당기순손실 공시
- ▲ 17. 3. 23 = 정부,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 신규 지원 결정
- ▲ 17. 4. 6 = 대우조선 노사, 전직원 임금 10% 추가반납 합의
- ▲ 17. 4. 12 = 시중은행, 채무 재조정과 신규 금융지원 분담방안 합의
- ▲ 17. 6. 28 = 1조 2848억원 규모 수은 영구채 발행 및 7928억원 채권단 출자전환
- ▲ 17. 9. 15 = 2017년 상반기 임의감사보고서 '적정여건'
- ▲ 18. 3. 22 = 2017년 영업이익 7330억원 2011년 이후 6년만에 흑자전환으로 '관리종목 해제'
- ▲ 19. 1. 31 = 산은, 대우조선 지분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민영화 추진